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

임희선¹, 박종두^{2*}

¹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²마들중합사회복지관 부장

The Effect of Parental Efficiency on Self-relianc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Mediating effect of Capacity Enhancement

Hee-Sun Im¹, Jong-Du Park^{2*}

¹Ph.D. Course,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²Head of Department, Community Organization Team, Madeul Community Welfare Center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수준과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수준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한 부모의 양육강화지원과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와 실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발달장애인, 부모, 양육효능감, 자립, 가족역량강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the independent lif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6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ata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was conducted. The mediating effect was Baron and Kenn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test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the level of self-reliance and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verified. In addition,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was verified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and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important to support parents' parenting and family capacity enhancement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Developmentally disabled, Parents, Parenting efficacy, Self-reliance,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Corresponding Author : Jong-Du Park(pjd7777@hanmail.net)

Received March 26,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April 12,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비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도 독립된 삶, 즉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과 타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지속적인 돌봄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담을 겪는다[1].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상관없이 자녀의 돌봄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평생 지속된다[2]. 이에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자립생활 지원방안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9년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2015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유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3].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특성이 자립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과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응답의 불명확성에 따라 조사연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4]. 이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는 가족 문제[5], 발달장애 자녀 심리적 반응[6], 치료 대상의 접근[7], 서비스 제공 방법[8]의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자립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립에 관한 연구가 있어도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9].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부정적인 견해로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서·지능·행동적 특성을 지니며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 지향적인 판단 능력의 제한으로 사회적응 능력 부족, 타율적 생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10].

하지만, 최근 자립이 중요시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다[11]. 자립생활 이념으로 근본적 측면인 자립생활로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 환경변화를 포함한 자립을 의미한다면 자립도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외부환경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발달장애인도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12]. 즉, 자립생활은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여 제한적인 자립

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상대적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수용하고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3]. 즉,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해도 훈련과 도움을 통하여 상대적 자립을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14-16].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가고 싶은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7]. 즉, 자립이란 보호가 아닌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장애인 자립지원을 확대하여 상대적 자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18]. 또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영위하며 자립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돌봄(care)은 장애인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중심으로 돌봄, 보건, 의료, 주거 지원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이다[19].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정책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자립생활은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일상적 자립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20].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모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욕구가 높은 현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부모의 돌봄이 중요하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협력자, 교육자, 의사결정권자, 옹호자로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존재이다[21].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심리적·사회적·가사적 다양한 영역에서 고충을 겪는다.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일반아동의 어머니 보다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23]. 특히,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행동·정서·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립에 영향을 준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가족의 역량을 높여 자녀의 자립과 정서적으

로 안정에 기여하며, 반대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냉담하게 양육하는 경향이 있음이 연구된 바 있다[24]. Kuhn et al.(2006)의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족역량강화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25]. 현재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24].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해 가족과 사회 지지 서비스가 미술, 교육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26]. 하지만 이들의 주제는 행동기법, 훈련을 위한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인 자녀의 자립에 초점을 둔 교육은 많지 않다. 대부분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목한 교육이므로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역량강화와 자립에 관한 연구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가족역량강화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15]. 또한,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역량이 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6-19]. 이는 가족의 역량강화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기술, 자원, 지식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건강, 치료, 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과 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코자 한다. 이를 통한 연구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는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양육 효능감과 자립의 관계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관한 신념이다[28]. 장애인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자립은 양적인 접근이 아닌, 장애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질적인 자립이 중요하다[29].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실질적인 욕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0]. 즉, 욕구에 부합하는 양육지원 복지서비스는 양육효능감을 높여 자녀의 자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양육효능감이 자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31,32].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자립과 정서적인 안정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24]. 하지만,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어, 관련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 양육 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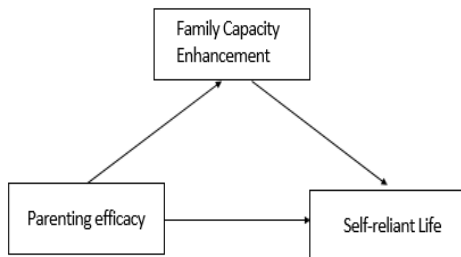
가족역량강화는 가족에게 지식 및 전문성 증진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강화하도록 돕는 능력을 의미한다[33]. 특히, 장애아동의 출산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오기에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를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높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34]. 본 연구에서는 가족역량강화를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를 위한 옹호능력,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능력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런 가족역량강화와 양육효능감의 선행 연구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가족역량강화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25,35], 양육효능감이 가족의 역량과 가족의 정서적으로 안정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24]. 하지만, 관련 연구는 많지 않기에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3 가족역량강화와 자립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자립은 발달장애인이 신체 자립, 심리자립, 경제자립,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론적 배경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족역량강화와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증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족역량강화가 자립생활에 정적인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15]. 또한,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가족역량강화가 장애인의 자립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16-19].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기에 관련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control variable : mother's age, father's age, family Income, religion

Fig. 1. Mediated Effect by Family Capacity Enhancement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목적에 도출하기 위하여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8개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150명에게 면접식 질문을 통한 설문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4부를 제외하여 146부를 분석하였다.

3.3 변수별 척도

3.3.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총 37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Cronbach' α 값 .920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854이었다.

3.2.2 가족역량강화

가족역량강화 척도는 Dechillo과 Friesen이 개발하고 전해인(2006)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역량강화 척도는 옹호능력,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총 34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Cronbach' α 값 .83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864이었다.

3.3.3 자립생활

자립생활 척도는 Human Care Association(1996)의 자기 평가 지표를 근거로 국립재활원(2000)에서 개발하고 윤순희(200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립생활 척도는 신체 자립, 심리자립, 경제자립, 사회참여 자립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31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Cronbach's α 값은 .917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 .950이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본 연구의 주요 요인별 평균값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족역량강화를 매개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분석은 바론과 케니의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과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4. 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을 통해 확인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연령과 가족수입은 응답한 설문내용의 비율척도를 구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37세에서 42세가 55명(37.7%)으로 높은 비율이며, 43세에서 48세가 37명(25.3%), 49세 이상이 30명(20.5%), 36세 이하가 24명(16.4%)의 비율을 보였다. 아버지의 연령으로 39세에서 43세가 49명(33.6%)으로 높은 비율이며, 44세에서 48세가 33명(22.6%), 49세에서 53세가 28명(19.2%), 38세 미만이 21명(14.4%), 54세 이상이 15명(10.3%)의 비율을 보였다. 가족구성원의 한달 평균 수입은 400만원에서 499만원이 43명(29.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500만원 이상이 42명(28.8%), 300만원에서 399만원이 31명(21.2%), 200만원에서 299만원이 20명(13.7%), 100만원에서 199만원이 10명(6.8%)의 비율을 보였다. 종교에 관한 응답으로 기독교가 62명(42.5%)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어서 무교가 33명(22.6%)이었고, 천주교가 24명(16.4%), 불교가 22명(15.1%)의 비율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3명으로 77.4%의 비율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N	%
Mother's age	~36 age	24	16.4
	37-42 age	55	37.7
	43-48 age	37	25.3
	49~ age	30	20.5
Father's age	~38 age	21	14.4
	39-43 age	49	33.6
	44-48 age	33	22.6
	49-53 age	28	19.2
	54~ age	15	10.3
Family Income	100-199 ten thousand	10	6.8
	200-299 ten thousand	20	13.7
	300-399 ten thousand	31	21.2
	400-499 ten thousand	43	29.5
	500~ ten thousand	42	28.8
Religion	Christianity	62	42.5
	Catholic	24	16.4
	Buddhism	22	15.1
	None	33	22.6
	Etc	5	3.4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를 통해 확인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253 (SD=1.317), 가족역량강화는 평균 3.353(SD= 1.056), 자립은 평균 3.077(SD=1.017)로 확인됐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하여 확인한 왜도와 첨도는 왜도 3 미만, 첨도 7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했다.

Table 2.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efficacy	3.253	1.317	-.536	-.893
Family Capacity Enhancement	3.353	1.056	-.118	-1.234
Self-reliant Life	3.077	1.017	.157	-1.047

4.3 상관관계

Table 3을 통하여 확인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를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의 부모의 연령과 가족수입은 설문지를 근거로 구분화하지 않고 비율척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종교는 더미처리하여 무교=0, 종교있음=1로 처리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1						
2.	.880**	1					
3.	.396**	.354**	1				
4.	.245**	.393**	.246**	1			
5.	.409**	.367**	.627**	.350**	1		
6.	.449**	.505**	.635**	.333**	.646**	1	
7.	.372**	.406**	.609**	.292**	.663**	.682**	1

1. Mother's age, 2. Father's age
3. Family Income,
4. Religion(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Etc=1/ None=0)
5. Parenting efficacy
6. Family Capacity Enhancement
7. Self-reliant Life

*p<.05, **p<.01

중속변수인 자립과의 상관관계는 가족역량강화가 높을수록(r=.682, p<0.01),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r=.663, p<0.01),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r=.609, p<0.01),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r=.406, p<0.01),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r=.372, p<0.01),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r=.292,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역량강화와의 상관관계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r=.646, p<0.01),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r=.635, p<0.01),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r=.505, p<0.01),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r=.449, p<0.01),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r=.333,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는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r=.627, p<0.01),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r=.409, p<0.01),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r=.367, p<0.01), 종교가 있는 경우(r=.350,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Family Capacity Enhancement

Variable	DV: Self-reliant Life (Total Effect)				DV: Family Capacity Enhancement				DV: Self-reliant Life (Direct Effect)			
	B	β	t	p	B	β	t	p	B	β	t	p
-	.634		2.063	.041	.109		.356	.722	.601		2.044	.043
Mother's age	-.222	-.225	-1.722	.087	-.252	-.244	-1.967	.051	-.144	-.146	-1.156	.250
Father's age	.276	.340	2.560	.012	.397	.466	3.698	.000	.154	.189	1.425	.156
Family Income	.242	.301	3.968	.000	.285	.339	4.700	.000	.154	.192	2.459	.015
Religion(dummy)	.013	.017	.254	.800	.001	.001	.013	.989	.013	.017	.262	.794
Parenting efficacy	.432	.447	5.675	.000	.367	.363	4.842	.000	.319	.330	4.061	.000
Family Capacity Enhancement									.308	.322	3.795	.000
R ²	.529				.575				.574			
adj R ²	.513				.560				.555			
F(p)	31.506(.000)				37.927(.000)				31.168(.000)			

Religion =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Etc = 1 / None=0)

4.4 매개효과(가족역량강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바론과 케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부모의 연령과 가족수입은 설문지를 근거로 비윤척도로 진행하고, 종교는 더미처리하여(무교=0, 종교있음=1) 통제변인으로 검증했다.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하였으며(R²=.529, F=31.506, p=.000, Durbin-Watson= 1.832),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β =.447, t=5.675, p=.000). 매개변수인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R²=.575, F=37.927, p=.000, Durbin-Watson=1.893),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363, t=4.842, p=.000).

이에 연구문제 1번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와 연구문제 2번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하였으며(R²=.574, F=31.168, p=.000, Durbin-Watson 1.754),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β =.330, t=4.061, p=.000), 가족역량강화는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β =.322, t=3.795, p=.000)을 미쳤다. 검증 결과 직접효과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력(β =.447, t=5.675, p=.000)은 총효과에서의 영향력(β =.330, t=4.061, p=.000)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역량강화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3번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는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모델에서 단계별 분산 팽창계수의 최대값은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발생되지 않았다.

4.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test)

앞선 결과를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소벨 테스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역량강화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2.469, P=.014).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by Sobel test

Sobel Test	Z	p
Parenting efficacy → Family Capacity Enhancement → Self-reliant Life	2.469	.014

*p<.05, **p<.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146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족역량강화를 매개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24,31,32]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접근방법의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역량강화에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확인한 연구[24,25,35]와 견해를 같이 한다. 위의 연구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가족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족화합 그리고 자립지원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는 정(+)적인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의 선행연구 [24,25,35], 가족역량강화와 자립의 선행연구[16-19]와 맥을 같이 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발달장애인이 독립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결정을 통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역량을 지원하는 양육효능감 강화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시설입소 비율이 타 장애유형 보다 높다[27]. 이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집단은 가족이며,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비공식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안정하게 지원하는 효과적 자원이라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한 만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상호작용으로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의 측면을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발달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를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한다[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관점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으로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와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모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요청된다.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하여 정서·심리적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개개인 의지로 가족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서, 심리프로그램과 상호지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의 실천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가족역량강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자립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선행연구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인 발달장애인의 모집단을 표본 추출하기 어려워 임의표집을 통해 조사한점으로 결과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모집단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질적연구를 포함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로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연구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처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립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로 사례 연구 또는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실험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Singer, L. & Farker, L. (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atern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s*, 38, 444-449. DOI : 10.2307.585751.
- [2] Y. R. Kim, G. E. Kim & S. Y. Kim. (2015). Research on the burden of care and related variables of parents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men's Study*, 88(1), 117-164.
- [3] J. H. Im & W. S. Sin. (2018). Types of parents' subjective perception of self-relia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8, 157-184.
- [4] Y. D. Kim, B. S. Lee & H. S. Kang. (2009).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s recognized by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Social Welfare Research*, 40(4), 231-257.
- [5] H. Y. Sari, G. Baser & J. M. Turan. (2006). Experience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Pediatric Nursing*, 18(4), 29-32. DOI : 10.7748/paed2006.05.18.4.29.c1024
- [6] M. Van Riper. (2000). Family Variables Associated With Well-Being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Family Nursing*, 6(3), 267-286. DOI : 10.1177/10748407000600305
- [7] H. J. Shin & E. S. Jang. (2019). Therapeutic Strategies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Family and Family Therapy*, 27(2), 275-301.
- [8] E. S. Hong & S. C. Oh. (2019). A Development, Imple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Camp for Family with a Child with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21(3), 1-28. DOI : 10.35361/KJID.21.3.1
- [9] J. Y. Yun, J. H. Park & J. G. Choel. (2015). Exploring the Experience of the Independent Living Proces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ed on the theory of analytical basis. *Intellectual Disabilities Study*, 17(2), 229-254.
- [10] Dejong, G. (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s,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 [11] J. Y. Park. (2011).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Independent Living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Independent Home. *Korean Social Welfare Qualitative Study*, 5(2), 35-59.
- [12] S. A. Park. (2011).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t Living Ability Evaluation Scale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habilitation Welfare*, 15(4), 129-157.
- [13] N. Crewe & I. K. Zola. (2001). *Independent Living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San Jose: People with Disabilities Press.
- [14] Brisenden, S. (1989). *A charter for Personal care*. Progress 16, 6-8.
- [15] S. J. Sung. (2002). The concept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dependent life movement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the United States. *Rehabilitation Welfare*, 6(2), 24-54.
- [16] M. O. Kim & M. A. Jung. (2017). Independence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pplying the support life model implications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Korea.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69(1), 255-281.
- [17] L. A. King, C. K. Scollon, C. Ramsey & T. Williams. (2006). Stories of life trans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ego development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509-536. DOI : 10.1006/jrpe.2000.2285
- [18] Y. D. Kim & S. K. Park. (2008). Differences on Self-determination Experience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according to Livings in the Different Types of Residential Hom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4), 79-103.
- [19] N. M. Crewe & I. K. Zola. (2001). *Independent living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Lincoln.
- [20] Y. D. Kim. (2018). Community Care, What to do?, Participatory Solidarity Social Welfare Committee. *Monthly Welfare Trend*, 238, 5-10.
- [21] Bianco, M. (2009). Parents Perceptions of Post school Years for Young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3), 186-196.
DOI : 10.1352/1934-9556-47.3.186

[22] Y. H. Song. (2000). A study of psychological service in developmental disordered children's interven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7, 145-185. DOI : 10.1177/1359104506064987

[23] J. P. Lee. (2008).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 403-428.

[24] H. S. Kim. (2007).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confidence in first-time mothers of infants in their first year.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3, 119-127.

[25] Kuhn. J. C. & Carter. A. S. (2006). Maternal self-efficacy and associated parenting cognitions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merican. Orthopsychiatry*, 76, 564-575.

[26] D. Y. Jung & J. A. Choi. (2010).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Emot. Behav. Disord*, 26, 319-343.

[27] H. K. Choi. (2015). Adapt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 Mixed-methods Design. *Korean Acad Nurs*, 45(4), 501-512.

[28] J. H. Jung. (2019). *The effect of family-centered future planning programs on the self-efficacy and independence capabilitie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trengthening of parents' self-elasticity and family capabilities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29] Jabbar, B. M. (2014). *Parenting self-efficacy and role participation among parents with spinal cord inj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30] Prilleltensky, O. (2003). A ramp to motherhood: The experiences of mother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exuality and Disability*, 21, 21-47.

[31] E. J. Im & Y. H. Lee. (2010). Social support for disabled women affects parenting behavior Influence of: Focusing 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Family and culture*, 22(1), 1-33.

[32] J. Y. Kim & Y. C. Jung. (2014). The effect of career stres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isability and employment*, 24(4), 249-275.

[33] S. H. Jung. (2016).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special education-related services on parenting efficacy, family competency enhancement, and family quality of lif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34] O'Shea, D., O'Shea, L., Algozzine, R. & Hammitt, D. (2001). *Families and teacher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35] H. B. Kim. (201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Women with Disabilities*. Master's degree. Seoul University.

임 희 선(Hee-Sun Im)

[정회원]



- 2016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청소년 교육과)
- 2020년 2월 :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 2020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 박사과정

- 1994년 10월~현재 : 벽산엔지니어링(주)
- 관심분야 : 청소년, 장애인
- E-Mail: hsim@bseng.co.kr

박 종 두(Jong-Du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2년 8월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21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행정학 박사)

- 2015년 2월~현재 :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관심분야 : 장애인, 지역복지
- E-Mail pjd7777@hanmail.net